

“신용경색 우려시 유동성 즉시 공급”

김석동 재정부 제1차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관련 대책 발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상황이 우려될 경우 유동성 조절대출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결과에 관련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용경색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개별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생길 경우는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통해, 전체 금융시장의 문제는 RP 매입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김 차관은 “원화와 외화를 막론하고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상황에 대해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협의해 충분한 대응하겠다”면서 “다만 현재는 80%인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비율을 조절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현재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등의 요인을 점검하고 파생결합상품에 대한 전반적 리스크 관리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금융시장 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시장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제2금융권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사태가 국제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김석동 재정부 제1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의 건전성 강화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나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음에도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역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적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투자 규모는 5개 은행 6억달러, 9개 보험사 2억5천만달러 등 총 8억5천만달러 규모로 이 중 평가손실 규모는 현재 전체의 10%인 8천500만달러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보유 채권 중 80%가 A-, 나머지 B 등급 수준이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 금융

회사들의 수익 규모상 이 정도의 영향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김 차관은 “위험자산 회피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증권 발행이 다소 어려워지는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현재의 풍부한 유동성 등을 고려할 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농업협력 ‘물꼬’ 터질까

정상회담 계기 활기 ‘주목’ 2005년 합의 사업 재추진

7년만의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개점휴업’ 상태인 정부 차원의 농업협력 사업도 활기를 띠기 주목된다.

농림부는 일단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기보다 지난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뒤 진전이 없는 사항들을 실무 차원에서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의제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농림부와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 남북 양측은 개성에서 1차 남북농업협력 위원회를 열어 ▲협동농장을 통한 육묘시설·비료·농약·농기계·영농기술 지원 ▲현대적 종자생산 및 가공·보관·처리시설 지원 ▲우량 유전자원 교환, 재

배기술 개발 협력,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 ▲축산·과수·채소·잡작분야 협력 ▲공동 양묘장 조성 및 산림 병해충 방제 등의 기본 협력 방향에 합의한 바 있다.

또 당시 이같은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실무 협의를 개최기도 했으나, 이후 지금까지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2년이 지나도록 실무접촉 한번 갖지 못한 상태다.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최근 수년동안 ‘협동농장’ 형태의 활발한 농업교류가 진행돼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대북지원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약 20곳에 이른다. 이들은 주로 북한 각 지역 농장과 결연을 맺고 모종, 농기자재, 영농기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이 진척되지 못하는 것은 북한측이 부담없고 자신들의 기대수준에도 부합하는 민간부문 교류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따지면 깎아주는 정유사 기름값

제주지역·고속도로 휴게소 향의에 슬그머니 ‘인하’

주유소들이 기름 값이 부당하게 높다고 성토하면 정유사들이 슬그머니 가격을 깎아주곤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이달 초 제주도 지역 주유소가 공급하는 제품가격을 8당 30~40원 내렸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값을 내린 이유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지역의 경우 정유사 공급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8당 평균 100원이 높은 것을 항의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주유소협회는 최근 정유사 공급가

격 인하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지역구 의원인 김우남 의원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혐의가 있다고 신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정유사들이 담합 의혹을 피하려고 선두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인하하고 후발주자들이 며칠 뒤에 따라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자들이 정유사와 한판 힘겨투기를 한 끝에 기름값을 전국 평균가격의 상하 0.3%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하고 공급가격을 8당 40~50원을 내리는데 성공한 적이 있다. /연합뉴스

“국내 모기지 부실사태 발생 가능성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 국내 금융기관의 모기지 대출 역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발표한 ‘글로벌 유동성 축소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연체율이 낮은 데다 상품구조와 자금조달 방식 등에서 미국 주택시장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가 한국에서 일어날 가

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저신용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결과 연체율이 최근 19%에 이르는 반면, 국내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평균 9% 안팎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국내 저축은행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체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취급 비중도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연구원은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국내 대출금리 상승세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모기지 대출 역시 부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가구당 월 교통비 28만 552원

교통비 관련 물가, 광주 3.6%·전남 4.2% 급등

고유가로 인해 2·4분기 차량 연료비와 교통비 관련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교통비 지출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 교통비 지출한 금액은 월 평균 28만5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만5천773원)에 비해 9.7% 증가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교통비 관련 물가가 전분기보다 각각 3.6%, 4.2% 급등했다. 광주는 전분기인 1·4분기보다 자동차 학원비가 13.3% 상승한 것을 비

롯, ▲휘발유(8.7%) ▲경유(6.4%) ▲대리운전(4.2%) ▲자동차용 LPG(3.7%) 등의 오름세를 보였다.

전남도 시내버스 요금이 1·4분기보다 8.6% 뛰었을 비롯, ▲휘발유(8.2%) ▲경유(5.5%) ▲자동차용 LPG(4.6%) 등의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 가계를 압박했다.

광주·전남은 또 교통비 관련 물가가 1년 전인 지난해 2·4분기에 비해 나란히 3.2% 오르는 등 고유가로 인한 교통비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인당 월 평균 임금 257만5,000원

올해 1~6월 기업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에 따르면 1~6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7천438곳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7만5천원으로 작년 동기의 244만3천원에 비해 5.4% 늘었다.

상반기의 임금총액 증가율은 2005년 7.4%, 2006년 5.8%, 올해 5.4%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임금총액은 247만6천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업종별 월 임금총액을 살펴보면 전기·가스·수도사업이 433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융·보험업(429만9천원), 통신업(392만원), 교육서비스업(285만4천원) 등 순이었다. /연합뉴스

호희장 10년 비서 김경배씨

정몽구 회장 비서실장 임명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수행 비서로 10년간 일한 바 있는 김경배(43·사진) 현대차 상무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됐다.

13일 현대·기아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 기획실 김경배 이사가 최근 상무로 승진하는 동시에 정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김 상무는 정주영 명예회장, 정몽구 회장 등 ‘현대가(家) 총수 2대’의 비서로 일하게 됐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대정공에 입사한 김 상무는 2000년 2월까지 10년간 정 명예회장을 수행했으며, 이후 현대정공 미국 현지법인 차장, 글로벌 비서 북미법인 CFO, 현대모비스 경영지원담당 이사 등을 지냈다. /연합뉴스

쏟아져 오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 기술

1/3로 줄었다

에너지, 난방비 절감에 힘입어 1/3로 줄었다

안정수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최대 300만원 무상 지원금

TEMPIA
02-955-4122, 080-701-7117

우리강산 KALTOUR (유)산애여행레저산업

1800-11577-9033

제주도	조각가 한라산 동면	139,000원
제주도	조각가 모도여행	149,000원
제주도	조각가 여행 상품	
제주도	조각가 오일여행	

문의: 02-955-4122, 080-701-7117